

◆ 북미

- 美 뉴욕주, 계약자 보호취지의 보험사고 발생 통지 법 개정
- 美 State Farm, 보험사고 분석은 보험계약자 및 자동차 구매자 모두에게 혜택

◆ 유럽

- 영국, 홍수로 인한 반복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 예산을 요청
- ABI, 근재보험(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추적체계 개선을 추진

◆ 일본

- 일본기업, 이슬람교 전용 보험 타카풀(Takafu)에 관심
- 토쿄해상홀딩스, 미국 보험그룹 Philadelphia 홀딩 인수

◆ 중국

- 상하이(上海) 생명보험시장, 대형보험사 시장점유율 하락
- 대리인의 대리서명, 보험업계에서 영구 추방될 수 도

◆ 국제금융시장 주요 지표

【 North America Insurance Industry News 】

□ 美 뉴욕주, 계약자 보호취지의 보험사고 발생 통지 법 개정

- 뉴욕주 주지사 페터슨은 7월 23일 계약자가 보험사고 통지를 늦게 하였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보험사에게 발생하는 손해가 없다면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거부 할 수 없다는 보험계약법 개정안에 서명함.
- 통칭 '손실미발생(no prejudice)'법으로 일컬어지는 개정법이 통과됨에 따라 사고발생 통지가 늦어졌다는 사유로 보험사가 보험금지급을 거절하였던 손해 또는 생명보험금 지급 관련 소송이 활기를 보일 것으로 전망
- 본 개정법은 2009년 3월 1일 발효 예정
- 본 개정법에 따르면 보험사고 발생 통보가 발생일로 부터 2년을 넘지 않을 경우 통보연장에 따른 보험사 손해는 보험회사가 입증하여야 하며, 만약 보험금지급 요청이 발생일로부터 2년을 초과했을 경우 통보연기로 인한 보험사 손해 미발생 입증은 피보험자의 몫이 됨.
- 따라서 보험사고 발생 통보를 규정 기간을 훨씬 지나 통보했을 경우 계약자는 통보가 늦을 수밖에 없었던 합리적인 사유를 입증하여야 함.

*국내는 상법 제652조 제1항에 따라 보험사고 발생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험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법 제657조 제2항에는 보험계약자가 통지를 게을리 하여 손해가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손해는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

- 한편, 뉴욕소재 보험금지급 전문 로펌의 파사난 회장은 이번 뉴욕주의 법개정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상당히 보장하는 의미 있는 법 개정이라고 평가함.

- 그러나 워싱턴 DC. 소재 와일리 로펌의 포건변호사는 이번 개정이 보험계약자의 손을 들어주고 있지만 사고 발생에 대한 즉각적인 통보는 계약자와 보험사 모두의 이익을 지켜주는 중요한 사항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

장하며 적시에 사고발생이 통보되지 않을 경우 증거 또는 증인이 사라질 수도 있고 이로 인한 궁극적 손해는 양측 모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함.

(Business Insurance, 7/24)

□ 美 State Farm, 보험사고 분석은 보험계약자 및 자동차 구매자 모두에게 혜택

- 美자동차보험 시장의 상위권에 속하는 State Farm은 자신들이 제공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사고발생 분석이 모든 자동차보험계약자에게 이익을 가져다주고 있다고 주장
- State Farm은 연간 9백만 건의 자동차보험 지급청구 건을 처리하고 있는데, 동 회사는 계약자들의 사고발생 경향을 조사·분석하여 차량의 문제점을 자동차메이커와의 정기회의시 통보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 예를 들어 동회사는 도난 발생 빈도가 높은 차량의 도난방지 설계 필요성을 제언하거나, 특정 범퍼 사용이 차량충돌로 인한 사망사고를 높이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할 뿐만 아니라 동승자 상해발생률이 높은 차량모델을 알려줌으로써 메이커의 차량설계 변경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
- State Farm의 대변인 킵 덕스는 '이러한 결과는 자동차메이커와 State Farm의 관심이 일치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언급하면서 '간혹 제작사는 좋은 아이디어가 State Farm의 조언 덕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도 하지만, State Farm의 제언은 결국 차량의 안전성을 높이게 되어 State Farm의 고객뿐만 아니라 모든 자동차구입자에게 혜택을 주고 궁극적으로는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고 설명
- 한편 일리노이주 블루밍턴에 위치한 State Farm의 차량연구센터(Vehicle Research Facility)에서는 수리비용이 과다하게 청구된 문제 차량을 연간 25~50대 정도 분해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있는데 투입 노동시간이 차량수리비용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미국에서는 이러한 연구가 자동차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 첩경이라고 밝힘. (PRNewswire-FirstCall 7/21)

【 Europe Insurance Industry News 】

□ 영국, 홍수로 인한 반복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 예산을 요청

- 보험회사들은 지난해 영국에서 발생한 여름철 홍수 피해와 같은 도시 대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7억 2천만 파운드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음.
 - 이는 1947년 이래 영국 중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한 최악의 홍수 피해라며, 글로스터셔의 관광 명소 코츠월드 주민 약 2,000여명이 홍수를 피해 대피했었고, 튜크스베리 성당 인근이 온통 물에 잠기기도 하였음.
- 악사(AXA)는 지난해 이 같은 홍수 피해를 입은 지역을 중심으로 45개 마을의 배수로 표면 공사가 필요하다고 전했으며, 이를 위해선 7억 2천만 파운드의 추가예산을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함.
 - 손해배상 담당책임자인 David Williams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홍수 피해로 인해 사용된 총 복구비용은 340억 파운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07년 홍수 관련 보험금지급의 75% 이상이 배수로와 관련된 문제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추가된 예산은 사람들의 생활에 혼란을 줄여 줄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라고 전함.
- 이에 정부는 이미 2010~2011년까지 강가 및 해안가 난관 설치 작업으로 8억 파운드의 예산을 책정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으며, 수로 관리 계획 개선과 관련하여 5백만 파운드의 추가예산이 더해질 것이라고 덧붙임.
 - Defra 대변인에 따르면, 수로 관리 개선에 대한 연구가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이를 7월 말까지 완료하여 보고서로 발표하는 등 이번 분석 자료를 토대로 올해 말까지 새로운 수로 관리 시스템 및 최종 정책 결정과정에 새로운 가이드라인으로 제공하게 될 것이라 전함.

(Yorkshire, 7/21)

□ ABI, 근재보험(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 추적체계 개선을 추진

- 영국보험자협회(ABI, The 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는 오래 전에 기록된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Employment's Liability Insurance)*에 대한 추적체계 코드를 세밀하게 점검하고 있으나, 성공률은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Employer's Liability)은 피보험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금,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에 관한 소송을 위하여 회사의 서면 동의를 받아 지급한 비용, 피보험자가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회사와의 해결 협력을 위해 지급한 비용을 보상하는 것임.

- 그 추적코드 시스템은 근로자가 직장에서 근무하는 동안 발생한 질병이나 상해로부터 피보험자를 보상하기 위한 것이며, 만약 이전 사업장의 고용주가 사업을 그만 둔 경우라도 이 시스템의 이용은 가능하다고 전함.
- ABI의 코드 추적체계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보험자나 피보험자 모두 ABI 회원이면 누구나 온라인상으로 근재보험(ELI)에 관한 이력을 조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별도의 비용은 없고 조회 결과는 자동화시스템으로 인해 온라인이나 이메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음.
- 그러나, ABI에서는 기록이 누락된 오래된 보험 약관의 임의코드 경우에는 지난 기록을 찾고자 희망하는 청구인의 약 40% 정도만이 추적이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음.
- 한편, 영국보험중개인협회(BIBA, The British Insurance Broker's Association)는 ABI와 지난주 회의를 통해 코드 추적체계 개선 내용에 대한 제안서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으나, 아직 관련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BIBA의 Graeme Trudgill은 이번 이슈들이 보다 광범위한 파장과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만큼,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좀 더 주의 깊게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견해임.
- 또한, ABI의 현재 코드 추적체계는 단순히 지켜보고만 있기에는 완벽한 상태가 아니라며, 국제적인 이슈를 포함한 관련 모든 이슈들을 보다 조심스럽게 풀어나가고 싶다고 전함.

(Insurance Times, 7/24)

【 China Insurance Industry News 】

□ 상하이(上海) 생명보험시장, 대형보험사 시장점유율 하락

- 상하이(上海) 주식시장이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사이 주식시장에서 흘러나온 자금이 보험회사로 유입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음.
- 특히 방카슈랑스 업무가 급증하면서 상반기 상하이 생명보험 수입보험료 증가율이 60%를 넘고 있기도 함.
- 통계자료에 따르면, 금년 상반기 상하이 생명보험 업계가 거수한 수입보험료는 총 266.5억 위안으로 전년동기대비 60.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는 개인, 단체, 대리점 등 판매채널에 따라 증가율의 차이는 약간씩 있으나, 방카슈랑스 채널이 129억 위안을 거수하여(증가율 179%)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남.
- 상하이 생명보험 시장은 보험사간 치열한 경쟁으로 시장점유율 측면에서는 다소 안정된 모습을 보여 왔으나, 지난해 방카슈랑스를 통해 판매된 투자연동형 보험상품이 돌풍을 일으키면서부터 빅3에 진입하게 됨.
- 가장 큰 변화는 인민보험공사 산하 건강보험회사가 농업은행, 중국은행, 공상은행 등의 판매채널을 확보하면서 금년 상반기에만 36.3억 위안(점유율 13.83%)을 거두어 평안생명(平安人壽), 중국생명(中國人壽)에 이어 3위를 기록한 것임.
- 또한, 4위는 과거 줄곧 빅3에 포함되었던 타이핑양생명(太平洋人壽)이 아닌 신화생명(新華人壽)이며, 평안생명과 중국인수가 1, 2위를 고수하고는 있지만 시장점유율이 각각 18.3%, 18.1%로 사상 최저치로 하락하면서 3위의 추격을 받는 신세가 됐다고 전함.

(상해증권보, 7/23)

□ 대리인의 대리서명, 보험업계에서 영구 추방될 수도

- 지난 7.24(목) 중국 보험업협회가 업계 내부적으로 공개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각급 보험회사에 <보험업 종사자 행위준칙(초안)>을 발송하였음.
- 금번 의견수렴용 행위준칙은 보험업 종사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행위준칙에 대한 상세규정 뿐만 아니라, 소비자 불만이 가장 많은 분야인 부실판매(과대과장설명, 대리서명 등) 및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그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주목 받고 있음.
- 보험업협회 관계자는 "이번 의견수렴은 8.15(금)까지 마감하며, 이후 정식 시행에 들어가면 이 행위준칙은 모든 보험업 종사자들이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행위규범으로 자리 잡게 됨에 따라 각급 보험업계가 자율적으로 보험업 종사자에 대한 행위 규율의 처분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고 전함.
- 주요내용은 한마디로 '성실신용'으로 요약되며, 보험모집인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실을 속이지 않아야 함.
- 또한 자필서명이 완료된 보험계약은 적법절차에 따라 이행해야 하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계약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하지만 보험모집인 들의 반응은 '너무 엄격하다'는 입장이며, 특히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행해진 대리서명의 경우 보험모집인 자격을 박탈당하고 영원히 추방당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는 크게 긴장하고 있음.
- 행위준칙은 약 200만 명에 이르는 보험대리인(생활설계사)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의 정식직원에게도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그 외에도 은행, 우체국 등 영업대리점의 보험판매인원에게도 이를 적용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전함.

(성도상보, 7/25)

【 Japan Insurance Industry News 】

□ 일본 기업, 이슬람교 전용 보험 타카풀(Takaful)에 관심 증가

- 'Takaful'은 상호부조를 의미하는 이슬람교도 전용의 보험을 일컫는데 이슬람교도들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보험(insurance)은 소액의 보험료로 고액의 보험금을 얻는 행위로 판단하며, 보험사의 수입보험료를 채권에 투자하여 노력의 대가 없이 이자수입을 기대하는 것은 회교 율법 어긋난다고 봄.
- 중동진출을 목적으로 있는 도쿄해상니치도(東京海上日動)화재보험은 이슬람권의 이러한 인식을 고려하여 2006년 11월 이슬람국가인 말레이시아에서 합작사 홍콩도쿄해상타카풀(Hong Leong Tokio Marine Takaful Berhad)회사를 설립
- 2007년 7월~08년 6월 기간 중 수입보험료로 1.7억 링깃(약 56억엔)을 거둬 말레이시아 제3위의 타카풀사로 자리매김 하고 1년 만에 흑자달성
- 신설 보험사가 흑자성적을 내려면 빨라도 5년이 소요되는데 홍콩도쿄해상타카풀사는 은행의 주택·자동차론에 부대하는 보험상품을 판매하여 가능하였음.
- 홍콩도쿄해상타카풀사(Hong Leong Tokio Marine Takaful Berhad)는 향후 은행 이외의 판매채널을 확대할 계획으로서 아시아 각국에서 이슬람교도 전용으로 개인 자금조달을 취급하는 이온크레디트서비스와 제휴할 예정이며 그 밖에 개인보험 대리점과도 판매제휴를 추진할 예정
- 한편 이슬람교도 전용 식품을 운송하는 유통업자 및 상사, 이슬람채권으로 자금을 조달한 종합건설업자 등 이슬람권과 비즈니스 진행중인 많은 기업들이 일반 보험대신 이슬람교 율법에 따라 운영되는 타카풀사를 통해 리스크를 회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음.

(DIAMOND 7/25)

□ 도쿄해상홀딩스, 미국 보험그룹 Philadelphia 홀딩 인수

- 도쿄해상니치도(東京海上日動)화재보험을 산하에 두고 있는 도쿄해상홀딩스는 7월 23일 미국의 중위권 손해보험회사그룹인 Philadelphia Consolidated Holding을 인수하여 완전 자회사화한다고 발표
- 매수액수는 47억 500만 달러로 일본의 보험회사에 의한 해외 M & A로는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
- 저출산·고령화로 일본 국내 보험시장이 정체되는 가운데 일본의 금융기관에 의한 해외 진출이 본격화되고 있음.
- 도쿄해상홀딩스는 도쿄해상니치도화재를 통해 Philadelphia Holding의 발행 주식을 100% 취득하고 2008년 4분기 중에 인수 절차를 끝낼 계획임.
- Philadelphia Holding의 설립자인 제임스·J·맥과이어 현 회장 등 회사의 경영진은 당분간 회사경영에 참여하도록 하되 인수절차 완료 후에는 도쿄해상측의 이사를 과반수로 채울 예정
- 보험상품과 고객 기반의 상호공유 등 인수 후 업무를 추진하면서 도쿄해상홀딩스는 Philadelphia의 인수를 통해 세계 최대의 보험시장인 미국에서의 보험사업 전개를 추진하기를 희망
- 도쿄해상홀딩스는 금년 3월에는 영국의 보험그룹인 킬른을 완전 자회사화하였기 때문에 킬른 경영진을 포함한 3사 합동 위원회를 마련하여 3개사 공동 사업추진도 검토해 갈 예정이라고 밝힘.

* Philadelphia Consolidated Holding Corp는 1962년 설립한 지주회사로서 산하에 손해보험회사 등을 소유하고 있으며 미국에서 50위 규모의 중견 손해보험그룹이지만, 수익이 높은 회사로서 펜실베이니아주에 본사가 있고 미국 47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며 임직원은 약 1400명으로 미국 나스닥에 상장하였음. 상품개발력이나 다양한 판매망을 활용한 마케팅파워가 장점으로 2007년 12월말 원수보험료는 14억 6000만 달러, 순이익은 3억 2700만 달러임.

(FujiSankei Business 7/24)

【 Financial Key Indicators 】

구분		07년말	08.7.18(금)	08.7.25(금)	전주대비
금리	韓 국고채(3년)	5.74	5.97	5.77	-0.20
	美 10년국채	4.03	4.08	4.00	-0.08
	英 10년국채	4.51	5.03	4.97	-0.06
	日 10년국채	1.51	1.58	1.58	0.00
주가	韓 KOSPI	1,897.13	1,509.99	1,597.93	5.82%
	韓 KOSDAQ	704.23	522.53	543.60	4.03%
	美 DJIA	13,264.82	11,496.57	11,370.69	-1.09%
	美 Nasdaq	2,652.28	2,282.78	2,310.53	1.22%
	英 FTSE100	6,456.90	5,376.40	5,352.60	-0.44%
	獨 DAX30	8,067.32	6,382.65	6,436.71	0.85%
	佛 CAC40	5,614.08	4,299.36	4,377.18	1.81%
	日 Nikkei225	15,307.78	12,803.70	13,334.76	4.15%
	中 상해종합	5,261.56	2,778.37	2,865.10	3.12%
	대만 가권	8,506.28	6,815.32	7,233.62	6.14%
	홍콩 항셱	27,812.65	21,874.19	22,740.71	3.96%
	원/달러	938.2	1,013.90	1,009.00	-4.90
환율	원/100엔	833.33	950.85	934.74	-16.11
	엔/달러	112.58	106.7	107.83	1.13
	달러/유로	1.4722	1.5853	1.5675	-0.0178
	위안/달러	7.3041	6.8209	6.818	-0.0029